

지역 소식통

정읍쪽, 직장협의회
기관장 정기 협의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19일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직장협의회 하반기 정기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는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직장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5명과 경찰서장 및 기관직원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고 직장협의회 회원가입 범위 확대, 발령제한사항 인사운영규칙 명문화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다뤘다.

김한곤 서장은 "앞으로도 직장협의회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치안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마을사무장 육성 간담회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 주민 주도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 나갈 마을사무장 육성 과정 간담회가 지난 18일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7회차로 기초반 교육을 진행하였고, 9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차로 심화반 교육을 추진하였다.

마을사무장 육성 과정 교육은 총 17회에 걸쳐 마을과 공동체 활동, 마을사무장의 실무 이해, 마을사업의 이해, 갈등관리·소통·공감관계 대화법, 우리지역 활동가 사례취취, 사업계획서 작성교육의 이해,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실재, 공모사업계획서 작성해보기, 우수사례마을 현장 교육, 견학보고서 작성 등으로 진행되었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1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이어 지난 14일 2022, 2023 부안군 마을사무장 육성 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 박차

성내면 조동리 184-4번지 일원...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

고창군이 4차 산업 핵심분야인 드론산업의 거점역할을 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184-4번지 일원에 8만1956㎡(약2만7000평) 규모로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 활주로(200m×20m), 및 실기시험장(90m×40m×4면) 등을 구축한다. 총사업비는 375억원에 달한다.

고창군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입안, 및 관련부서 협의 중이다.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2024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드론통합지원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원에서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활성화되는 시점에는 센터를 이용하는 연간 교육 인원이 1000여명, 자격시험 인원이 1만 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관련 산업의 확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고창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드론과 첨단물류, 반도체 등이 고창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며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고창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국토부 주거복지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소득취약계층 집수리 시행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등

고창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제3회 주거복지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9일 고창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제3회 주거복지 성과평가'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지자체 표창을 수여받았다.

고창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집수리를 시행하는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동당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전북 최초로 동당 600만원씩 총 5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19일 고창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제3회 주거복지 성과평가'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지자체 표창을 수여받았다.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하거나, 빈집재생활화주택의 임차인으로 연계하는 등 주거 상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층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고수 150세대, 무장 120세대, 울계 128세대 공공임대아파트가 준공돼 폭넓은 주택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에 발맞추어 저소득 취약계층과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임대보증금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거비 부담이 없는 고창군이 될 경우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정읍시가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청년 농업인과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1월 31일까지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 분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에 뜻이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 지급과 교육·컨설팅, 후계농 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청년후계농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로 독립경영예정자도 포함되며, 서류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선정 시 후계농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농업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수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10년 이하로 독립경영예정자도 포함되며, 서류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선정 시 후계농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고창군은 지역농촌 최대 어려움을인 '인력난해결'과 '소득증대'에 발맞추고 나서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오늘부터 지급농가 2496명, 품목 ha당 50~480만원 지급

정읍시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을 20일부터 차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농가는 2496명(농가)으로 단기간 면적은 동계작물 5500여 ha, 하계작물 1400여ha이며, 이모작 이행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면적은 900여 ha로 직불금 총 53억원이 지급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식량자급을 증진을 위해 동계에 논에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하계에 벼 대신 가루쌀(분질미)·논콩·하계 조식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과거 '논이모작 직불제'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동계작물 이외에 논콩, 가루쌀, 하계조

사료등의 하계작물이 추가돼 품목에 따라 ha당 50~48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신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두 차례 걸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대량검증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또한 올해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계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기오 과장은 "이번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으로 쌀 수급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18일 오후 대신면 오월농장을 찾아 시설채소, 생강, 잣소 등 복합영농으로 성공한 선도농가의 사례를 들었다.

고창군수, 청년승계농 현장 방문... 지원정책 공유

심덕섭 고창군수가 청년승계농 영농현장을 방문해 미래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 지원 육성을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18일 오후 대신면 오월농장을 찾아 시설채소, 생강, 잣소 등 복합영농으로 성공한 선도농가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부모의 뒤를 이어 영농을 승계한 청년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촌 인력부족 문제, 농기계 임대 활성화, 드론방제 지원, 부모와의 갈등해결 등 농업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고창군은 지역농촌 최대 어려움을인 '인력난해결'과 '소득증대'에 발맞추고 나서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

대 도입,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조례 등을 제정했고, 내년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영농기반 임차지원 및 이차보전, 생생동아리 지원, 초보농부 성공모델 구축, 기업승계농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청년농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소멸과 농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승계농 등 청년농업인들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 청년 중심 소통공간 조성, 기업승계농 확대 지원 등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